



김연아는 '멍연아'

캐나다에서 전지훈련중인 김연아가 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멍연아' 시리즈를 비팅화면으로 깔아 화제가 되고 있다. '멍연아' 또는 '김연아 멍 시리즈'로 불리는 이 이미지들은 김연아가 멍한 표정으로 피겨스케이트를 타는 장면들이다.

/연합뉴스

## KIA “빗속 혈투 괴로워”



우천중에도 취소 없이 개막후 53경기 강행군

경기 뒤엔 글러브 등 젖은 장비 말리기 ‘전쟁’

선수들 컨디션 저하에 부상 당할까 노심초사

홈경기가 있는 날이면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간 KIA 타이거즈 선수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훈련 시작 전까지 편한 복장으로 개별적으로 몸을 푸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지만 4일 KIA 선수들에게는 스트레칭 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덕아웃에 짐을 풀기와 무섭게 선수들은 스파이크와 글러브, 방망이 등 야구 장비를 잔뜩 들고 그라운드로 향했다.

특별한 훈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빗속에서 경기를 한 다음 날의 일상적인 풍경이다.

선수들은 이내 장비들을 헷볕에 가지런히 늘어놓은 뒤에야 운동을 시작했다. 어제 빗속에서 젖은 장비를 말리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다.

KIA는 올 시즌 유난히 날씨와의 인연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또 인연이 없다.

KIA는 개막 이후 4일까지 한 차례 쉬는 날 없이 53경기를 모두 소화했다. 53경기를 하면서 모두 날씨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경기를 한 적도 여러 차례. 특히 13-13 무승부 끝에 프로야구 역사 최장 경기 시간의 기록이 작성된 지난달 21일 LG전에서도 끊임없이 비가 내리며 선수들을 괴롭혔다.

날씨가 궂었던 3일에는 경기 2시간 정도를 앞두고 경기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한 경기도 쉬지 못하고 강행군이 이어진 터라 KIA 덕아웃 분위기는 내심 우천취소를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조금씩 굽어지던 빗줄기는 경기시작을 앞두고 뚝 그쳤다.

결국 경기는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경기 전 분위기와 달리 덕아웃에서는 비가 오자

여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빗속의 혈투에서 KIA는 연이어 나온 호수비와 선발 로페즈의 투호로 5-2로 승리하며 두산전 6연패의 사슬을 끊었다.

선수들이 가장 까다로워 하는 경기는 역시 수중전.

비에 젖은 야구장비가 상하기도 하고 볼발 변수가 많다. 평범한 플레이 하나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축축하게 젖은 유니폼을 입고 움직이는 것도 여간 불편한데다 다음 날 컨디션도 많이 떨어진다.

코칭 스태프도 비오는 날이 여간 신경 쓰인다.

아무래도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부상이라도 당할까 노심초사다. 작전내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게 코칭 스태프의 설명이다.

궂은 날 프런트들의 표정도 좋지 않다.

주말전 3연승으로 분위기가 한창 달아올랐지만 2일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경기장에는 4천8백35명의 관중이 찾는 데 그쳤다. 3일에는 관중수가 2천637명으로 뚝 떨어지면서 을 시즌 최소 관중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는 15일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릴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를 앞두고 20개팀 대표자 회의가 4일 광주일보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맑은 날씨가 이어진 4일 헛볕에 말리기 위해 내어놓은 스파이크와 글러브 등 야구 장비가 무등경기장 그라운드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

## 서재웅 1군 복귀



유동훈 5월 MVP

KIA 타이거즈의 유동훈이 4월 두산 베어스와의 홈 경기에 앞서 밝은안과 21이 시상하는 월간 MVP를 받았다. 유동훈은 5월 한 달간 0.54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1세이브 5홀드를 기록하며 팀의 3위 도약을 이끌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렸다. 또 볼넷 하나도 골라냈다.

2회 첫 타석에서 좌익수 둘 곳으로 물려난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3회 2사 1.3루에서 상대팀 투수 앤서니 스워즈에게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를 뽑아내며 3루 주자를 흡으로 불러들였다.

추신수는 후속 타자인 조니 페랄타의 훌런 때 흡에 들어오며 득점 도울었다.

/연합뉴스

## 추신수 사흘 연속 안타 행진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사흘 연속 안타를 때리며 1타점을 올렸다.

추신수는 4일(한국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하버트 험프리 메트로돔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미네소타 트윈스와 방문 경기에 좌익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4타수 1안타를 치면서 1타점을 올

## 제16회 무등기 고교야구 15일 개막

### 전국 20개 고교 참가… 동성고-강릉고 개막전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15일 오후 1시 광주동성고와 강릉고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올해 황금사자기 우승팀인 서울 충암고와 지난해 무등기 우승에 빛나는 서울 청원고, 전통의 강호 광주 동성고 등이 우승팀을 향한 치열한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Xports를 통해 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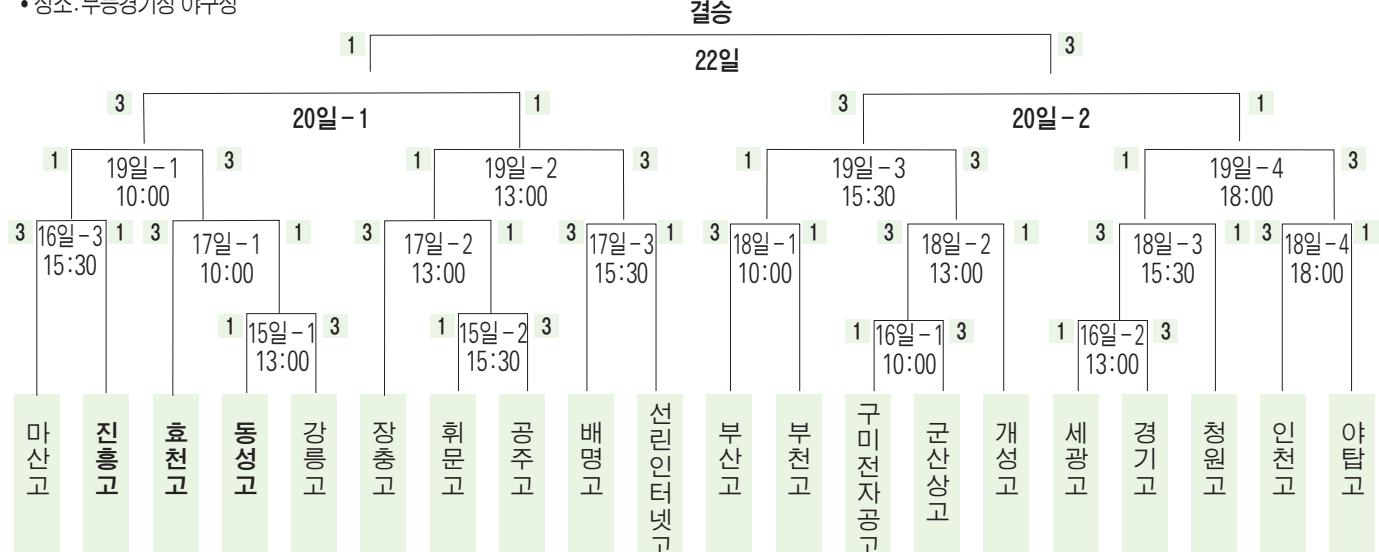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진표

•기간: 2009년 6월 15일~22일(8일간)

•장소: 무등경기장 야구장

※1-3 표시는 덕아웃 위치



## “프로배구 FA 취득 기간 너무 길다”

### 선수모임 “6~11시즌은 권리 무시… 4시즌이 적당”

최근 한국배구연맹이 도입하기로 한 FA(자유계약선수) 제도에 대해 프로배구 선수들이 “선수들의 권리가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프로배구’ 발전을 염원하는 선수들의 모임(이하 선수모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FA 자격 취득 요건이 지나치게 길어 새로 도입하려는 FA 제도가 구단의 이해 관계만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수모임 공동대표인 후인정(현대캐피탈), 석진욱(삼성화재) 등 각 구단 선수들은 “FA 자격을 취득하려면 남자 선수들은 군대에 가는 것을 포함해 8시즌 이상이 지나야

한다”며 “또 현행 드래프트 제도가 대학 졸업 예정자만 신인 드래프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나이로 보면 31세가 돼야 하는 문제 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배구는 다른 어떤 스포츠와 비교해도 선수생명이 짧다”며 “구단들이 도입하려는 FA제도는 실질적으로 FA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여자배구 선수들의 FA 자격 취득 요건이 6시즌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길다”고 비판했다.

선수모임은 “배구선수들 대부분이 3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4시즌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선수모임은 이밖에 드래프트 제도 개선, 이적동의서 제도 폐지 등도 요구했다.

선수모임에는 전체 100여명의 한국배구연맹 등록 선수 중 70% 가량인 70명이 동참하고 있다.

앞서 프로배구 남자부 구단들은 실무위원회를 열고 프로배구 출범(2005년) 이후 입단한 선수들은 여섯 시즌을 뛰면 FA 자격을 주고 프로 출범 이전에 입단한 선수들은 프로에서 7시즌을 뛰어야 FA가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프로 이전에 대학을 거치지 않고 고교만 졸업한 뒤 입단한 선수는 네 시즌을 더해 모두 11시즌을 뛰어야 FA가 되도록 합의했다.

/연합뉴스